

# 이번 주 힘 쏘자

## 축소교섭 진행

7월 13일(목) 14시 민주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2017년 12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 8개사 15명, 노동조합은 9개사 41명이 참가했다.

## 공민권 요구 쟁점

쟁점이 된 것은 공동요구안 중 ‘공민권행사’에 관한 것이었다. 국가기관의 소환에 출두하는 경우 해당기관, 적용대상자의 범위 문제다. 회사는 ‘집단교섭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법적 갈등이 벌어질 일야 없겠지만, 연대투쟁에서 소환이 남발되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부는 경주지부의 작년 집단교섭 합의안 중 공민권 보장 관련한 부분을 사측에 전달했고, 사측은 검토하기로 했다.

산재은폐방지 조항 중 ‘재해 발생 시 노사 병원 동행’하는 안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재해에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 휴가 전 타결위해 힘 쏘자

사측은 “축소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내부 논의 후 다음 교섭 전에 문서로 정리된 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부는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 임금 관련 활발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공동교섭 요구안의 문구 조정 쉽지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의된 안 보다 후퇴되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지부는 19일(수) 파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중 교섭 경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 휴가 전 타결을 위해 다음 주 노사가 힘을 쏘자”는 말을 전하고 교섭을 마쳤다.

**13차 집단교섭은 20일(목) 14시 안산지부에서 열린다.**

**2017년 집단교섭 제시안**

1. 임금인상

회사명	제시안	제시안	제시안
계양관기	기초급 월 10,000원	에스제이엠	기초급 월 53,000원
대원산업	기초급 월 81,000원	우원정기	기초급 월 24,000원
두원정공		주연테크	기초급 월 30,000원
신한탈트	기초급 월 10,000원	케이코	

2. 집단교섭 공동요구안

1) 공민권 행사보장  
회사는 조항에 근로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하면 아래의 기준으로 허용하며, 허용한 시간에 대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원, 경찰의 소환요구에 따라 종업으로 출두할 때 해당 소요시간.  
②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충선거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단, 각 사별 단체협약(노사합의)이 상기보다 상책할 경우 그에 따른다.)

2) 산재은폐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회사는 세대 발생 시 세대의사적 부조에 민생을 기하고,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병환 초기 진단 시 노,사 관계자가 동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사고성 재해 발생 시, 1주일 이내에 재해보상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해보상결과에 따라 알조한다.

2017. 7. 13.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축소교섭에는 지부 윤옥동 사무국장, 대원안산 정구양지 회장, 간사 김성학 노안부장과 사용자측 주연테크 장지환 본부장, 두원정공 정영구 부장, 에스제이엠 임재현 차장이 모여 논의를 했다. 임금 인상 안은 차기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 진전을 위한 각 사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코리아에프티, 3년 만에 힘 뻗!

**7.19(수) 2시 반에 코리아에프티 공동공장에서 지부 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2014년 설립 당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없이 단협을 체결했다. 작년에는 지부 운영위원들이 파업출정식에 결합한 후, 자체 파업투쟁으로 타결을 이끌어 냈다. 신생사업장이 생기면 몰빵하는 경기지부인데, 3년 간 한 번 가볼 일이 없었

다. 지부전체와 코리아에프티 조합원 사이에 접점이 많지 않았던 터라 지부 사업장들의 힘을 한 번 느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7.10(월) 지회 출근투쟁에 안성·평택 지역 사업장들이 모였다. 삼화지회 전 조합원이 참가해 힘찬 팔뚝질에 정확하게 금속노조가를 부르는 걸 본 코리아에프티 조합원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코리아에프티는 올 해 8차까지 교섭에서 제시안이 90,400원까지 나왔다. 언뜻 보면 높아보이지만 노조설립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모두 기본급화해 실제 인상효과가 매우 낮다. 지부는 19일 3년 만에 처음 코리아에프티에 간다. 휴가 전에 분위기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힘을 뻗 실을 예정이다.

